

연휴 끝 한파에 한랭질환 주의보...최근 5년 출동 1000건 ↑

소방청 전국 '한랭손상' 출동 건수 통계 경기 가장 잦은 출동...충남·서울도 많아

설 연휴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추위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한랭질환 취약계층인 고령층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을 의미한다. 저체온증, 동상, 침수병·침족병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설 연휴처럼 급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

해 소방 당국에는 해마다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 2018~2022년 5년간 한랭손상(저체온증, 동상 등)으로 인한 출동 건수만 1000건이 넘는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263건 ▲2019년 250건 ▲2020년 176건 ▲2021년 196건 ▲2022년 11월30일까지 114건 등 999건으로, 아직 전국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출동 건수를 더할 경우 1000건을 웃돈

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출동 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월을 제외하고 5년간 217건 출동했다. 충남 100건, 서울 97건, 강원 8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랭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은 저체온증이다. 질병관리청의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를 보면 지난해 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한랭질환자는 25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저체온증이 174명으로 69.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는 10명 발생했는데, 이들 모두 역시 저체온증 추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랭질환의 경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

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추운 날씨 장시간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 시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있어 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에서도 한랭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정 온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벼운 실내 운동, 음주 자제 등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따뜻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올려야 한다.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고, 따뜻한 음료로 몸을 녹이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의식이 혼미해지고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즉시 119 신고해야 한



다. 각 지역의 소방 본부 등에서는 사전에 구급대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급속 온풍기 등 한파 대응 구급장비를 마련하는 등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ULSAN	에어부산	BX8301	CANCELLED
GIMPO	KOREAN AIR	KE 1043	CANCELLED
YEOSU	진에어	LJ 599	CANCELLED
BUSAN	제주항공	7C 505	CANCELLED
GIMPO	제주항공	7C 107	CANCELLED
DAEGU	티웨이항공	TW 803	CANCELLED
CHEONGJU	티웨이항공	TW 871	CANCELLED
DAEGU	에이어나항공	OZ 8121	CANCELLED
GIMPO	KOREAN AIR	KE 1049	CANCELLED
BUSAN	에어부산	BX 8195	CANCELLED
YEOSU	에이어나항공	OZ 8197	CANCELLED
GWANGJU	KOREAN AIR	KE 1603	CANCELLED
CHEONGJU	KOREAN AIR	KE 1707	CANCELLED
GIMPO	에이어나항공	OZ 8921	CANCELLED
GIMPO	티웨이항공	TW 701	CANCELLED
GIMPO	진에어	LJ 301	CANCELLED
DAEGU	티웨이항공	TW 961	CANCELLED
GWANGJU	제주항공	7C 601	CANCELLED
DAEGU	티웨이항공	TW 805	CANCELLED

설 연휴 마지막 날, 제주공항 섰다운 제주지역에 대설 및 강풍특보가 내려진 2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안내 화면에 항공편 결항 문구가 가득하다. 제주공항은 이날 운항 예정이던 출·도착 항공편 476편 모두를 결항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전남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1만 4800건

'형사처벌 대상' 무면허·음주운전 11.8% 차지...사고 빈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이용객 의무 사항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에서 관련 법규 위반이 1만 48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7% 가량은 안전모 미착용이었지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도 전체 적발 건 수의 10%를 웃돌았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은 1만 2526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 경찰청 중 경기(7만 9919건), 서울(6만 4831건), 인천(1만 5120건)에 이어 4번째로 적발 건 수가 많다.

같은 기간 전남에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2274건 단속됐다.

광주·전남을 통틀어 '안전모 미착용'이 1만 3007건(광주 1만1227건·전남 17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법규 위반 건 수의 87.8%를 차지한다. 안전모 미착용이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도 11.8%를 차지했다. 법령 강화 이후 무면허 운전은 1242건(광주 864건·전남 378건) 적발됐다. 음주운전도 광주 408건, 전남 102건으로 총 510건에 이르렀다.

전동 킥보드 등의 탑승 인원을 위반한 정원 초과도 41건 단속됐다. 정원초과 운행의 경우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광주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18건(부상 21명)에서 2020년 38건(사망 1명·부상 41명), 2021년



100건(부상 116명)까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남은 ▲2019년 8건(부상 8명) ▲2020년 6건(부상 6명) ▲2021년 47건(사망 1명·부상 52명) 등으로 나타나 6배 가까이 늘었다.

오영환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사고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입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환각 때문에...” 설 연휴 첫날 어머니 둔기 살해 40대 구속

설 연휴 첫날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를 받는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추정)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과거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약물 처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환각 증상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동생은 범행 당일 오후 7시에 어머니

를 찾았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나지 않고 집에 머물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A씨를 상대로 범행 전후 상황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